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변화 연구

김기혁* · 김성희**

A Study on the Historical Landscape of Dongrae City-wall in Busan

Kihyuk Kim* and Sunghee Kim**

요약 : 본 연구는 동래 읍성의 입지, 성곽 형태 및 도로망, 관아 및 가옥분포,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경관 복원을 시도한 후,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야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던 현재의 장소에 고려말 읍성이 이전 입지한 것은 해안방어 요충지와외의 접근성을 최대로 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읍성이 위치한 장소는 동래부의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입지 특성은 4대문 위치 및 성안의 도로망 분포 등에 영향을 주었다. 관아시설의 배치는 중앙 권력의 상징, 읍성 군사 방어 기능과 관련되어 배치되었다. 객사 입지는 중심공간에 지형을 이용하여 권력 질서의 위계를 반영하였으며, 좌측에 동헌, 우측에 향청 및 군사 기능이 배치되었다. 읍성내 취락은 남문을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산록부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중 1920년대 시행된 시구개정사업으로 성벽이 철거되었고, 성안에 격자상의 도로망이 신설되었다. 평지에 있던 성벽 자리는 도로용지나 주택지로 이용되었다. 객사와 동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성안의 공간구조가 변화되었고, 관아건물은 공공기관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읍성이 위치하였던 장소의 상징적 의미는 쇠퇴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읍성은 부산시민에게 역사적인 중심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일부 경관을 중심으로 복원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읍성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당시대의 사회문화가 투영된 경관이며, 각 지방에 소재한 읍성은 새로운 시각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 성곽, 도시계획, 고지도, 식민지 도시, 역사지리, 풍수

Abstract : Dongrae-bu, the administrative central area in Busan in Chosun-dynasty(1392-1910), performed the large parts of diplomatic and trading functions with Japan because of its geographical conditions. Because of his location, landscape of Dongrae city-wall is the mirror of political and military meaning in Chosun-dynasty period. Elements of landscape, such as site of city-wall, location and morphology of gates, government official buildings and the road systems can be interpreted by the functional and socio-cultural terms. The changes of landscap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1910-1945) show that destruction of city-wall went on for the purpose of imperialism. Especially, the landscape which had political meaning in Chosun-dynasty had erased in terms of modern urban planning. Gates of city-wall, official guest house, fortress which symbolize the governing and political power of Chosun-dynasty were destructed almost perfectly. New road system was imported. Urban planning was effective instrument through which city-wall could be destroyed for the Japanese colonialism. Under those processes, traditional structure was changed towards the dependency on Japan. Those relict landscape are remained in present urban landscape such as road system, cul-de sac, house and cornerstones. Thos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ity-walls in Korea should be studied in terms of socio-cultural aspects in each periods.

Key Words : city-wall, urban planning, colonialism, historical geography, old maps, Feng-shui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부산 충렬고등학교 교사(Teacher, Choongryul High School)

1. 서론

1) 연구목적

도시 성곽은 축조되면서 도시내의 일정한 특성을 지닌 지리적 단위로 출현하여, 시·공간속에서 생성-발전-소멸단계를 거치며 오늘에 이른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는 종교적·의식적·상업적 중심지로서 물질적 자원의 보전뿐 아니라 권위적 자원의 저장소였으며, 동시에 정보와 지식을 보존하고 통제한다. 도시가 부와 권력의 저장소가 되면서 전쟁시 공격 목표가 되었고, 이에 군사적인 기능이 추가되었다(Mumford, 1961). 도시의 주민은 국가 권력의 직할하에 있는 상비군이 되었고 이 군사력으로 인해 도시의 힘은 주변 촌락보다 권력적인 우위에 서게 되었다.

권력의 저장공간으로 광범위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도시는 행정·군사력, 종교적 중심지역과 성곽을 지니게 되었으며, 성곽¹⁾에는 내·외의 성벽, 탑, 치성, 해자 등의 정교한 방어체제가 발달되었다. 성곽 축조로 도시는 권력의 저장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기까지 성곽은 도시를 상징하는 경관 중 하나였다. 성곽은 지배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권력의 공간적인 영향권을 표현하는 물리적인 수단이었다(Giddens, 1981). 성벽이 건설됨으로써 도시 경계, 왕권의 한계의 공간적 한계 등이 보다 명확해졌다. 그러나 도시가 발달하면서 성벽은 도시팽창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도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벽이 헐리고, 때로는 성벽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도 하였다. 서구 유럽도시에서 16세기에 시작된 성벽 철거는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의 경우 1857년 성벽 자리에 도시 순환도로가 건설되었다(장명수, 1994).

조선시대 우리나라 읍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생활 영역이면서, 동시에 중앙 정치권력의 지배 대상이 되는 곳이기도 하였다(최기엽, 2001). 따라서 읍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던 읍성은 배열방식이나 건축형태를 통해 군사·통치 기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김덕현, 2002). 주민들은 읍성을 통해 자신들을 정체화

(identifying)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행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읍성들은 구한말까지도 생활의 장으로서 남아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사업으로 성벽 철거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읍성 경관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성벽 철거는 1903년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부철도의 부설과 함께 1907년 성벽터에 5칸 도로가 개설되었고, 성안의 도로공사는 1909년 완료되었다(이호열, 1999a). 이어 서울에서는 전차부설과 함께 일본 황태자 방한시 남대문 통과문제로 인해 외교 갈등이 발생되면서 1907년 남대문 북쪽 성벽이, 1908년 좌우 성벽이 철거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전주의 성벽도 철거되는데 이는 호남평야의 수탈을 위한 전주-군산도로(전주시 번영로)의 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장명수, 1994).

서구 도시의 성벽 철거가 도시성장 과정 중에 나타났던 반면 우리나라 읍성 철거는 일제 강점기 중 식민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개념이 적용된 것은 1888년 도쿄 시구개정조례의 공포부터이다(손준목, 1990). 이는 기존의 도시를 새로운 시가지로 개량한다는 뜻으로 도쿄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도시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이후 1918년에 교토, 오오사카 등의 다른 도시에 적용되었으며 1919년에 도시계획법과 시가지 건축물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일제는 조선 강점이후 1912년 각도 장관에게 각 읍의 시구개정에 관한 훈령을 하달하였고, 이 시구개정사업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될 때까지 22년간 한반도에 적용된 도시계획 사업의 틀이었다. 일본에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18년인데 반해 조선에서 6년 앞서 시행된 것은 도시를 식민지 공간으로 재편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읍성의 성벽은 성안과 성밖의 거주자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²⁾. 구한말에는 성안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 거주자들은 성밖에 거주하면서 조선인과는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일본이 강점 이후 성벽 철거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실시한 것은 공간상에 반영되어 있는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일본인들의 생활공간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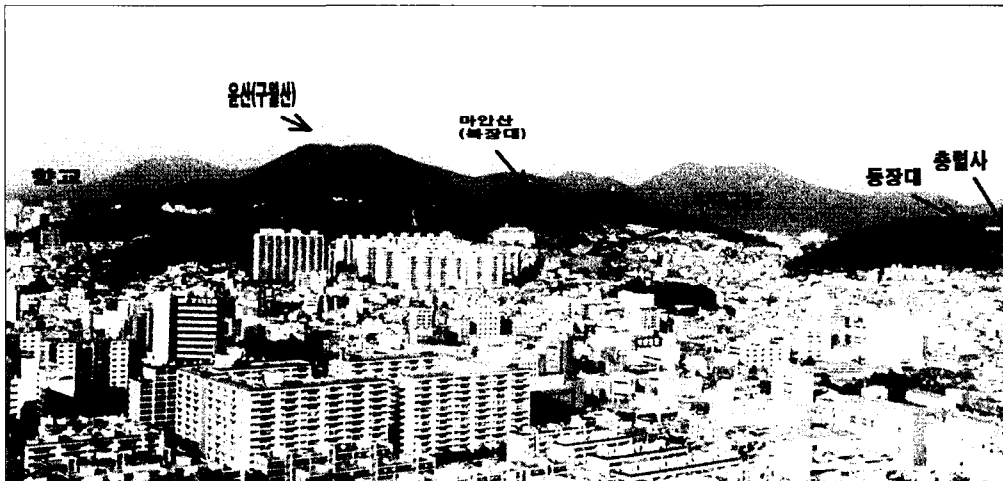


사진 1. 동래 읍성 주변의 전경(2002년 9월 촬영)

장, 도시공간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하는 수단인 도로망을 개설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 외에도 조선 권력의 상징경관인 성벽과 문루의 제거를 통해 지역·역사의식을 말살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 등 때문이었다(예명해, 최창길, 1994).

조선시대 동래부는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기 이전까지 변방 국경지역에 위치한 군사·방어 중심지였으며, 그 중 읍성은 군사, 행정 및 상업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 성벽 철거와 함께 내부구조가 변화되었으며, 지금은 부산광역시시의 부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 공간 속에서 동래는 조선시대 부산 지역을 통치하였던 중심지였다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장소성을 바탕으로 읍성지를 중심으로 복원작업이 진행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표석 등이 설치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동래읍성에 관한 연구는 그의 중요성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다. 물론 일부 논문에서 관아건물의 건축 기술(김순일·조형래, 1996), 성곽 축조 과정(윤용출, 1989) 등이 심도있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읍성이 지니는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성벽 철거 과정과 관련된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동래 읍성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화가 이루어져, 일부 건물만 남아 있고, 평지 성벽은 거의 철거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사진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읍성 입지, 성벽 형태 및 도로망, 관

아 및 가옥분포,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경관의 복원을 시도한 후, 읍성의 장소성이 경관에 반영된 내용과, 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도시로서의 공간 재편과정에서 성벽 철거 및 신작로의 개설, 토지 이용 등의 경관 변화 내용을 통해 장소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현대 도시 경관에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부산 문화의 역사지리적인 정체성 확립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본 논문에서 조선시대 읍성 경관의 복원은 입지, 규모와 형태, 성문 및 도로망 배치, 주요 관아건물과 취락 분포, 토지이용 등을 통하여 시도하였다. 연구자료로는 동래부를 대상으로 편찬된 地理志와 「東萊府築城瞻錄」(1731)³⁾, 古地圖 등 문헌과 「萊州築城碑」⁴⁾ 등의 비문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성 배경, 입지 및 형태 특성, 관아 건물 등을 파악한 후 이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였다. 위치 파악에 사용된 주 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적원도(1:2000, 1915)⁵⁾와 현재 지형도이다. 지적원도를 통하여 성벽 및 문루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현 지형도와 비교하였고, 현지 답사를 통해 성벽 흔적, 도로 형태 등을 확인하였다. 성안의 토지이용은 지적원도의 지목을 통하여 필지를 복원

하여, 취락 및 전답 분포, 도로망과 소하천 분포, 국유지 및 동지명 등이 정리되었다. 관아 건물의 위치는 지리지 내용을 통해 추정하였고, 이 중 일부는 현지답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 읍성내의 가옥 형태와 호구수는 「慶尙南道 東萊郡 洞別 家戶案(1904」; 이하 「家戶案」이라 함)⁶⁾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읍성의 경관 변화는 성벽 철거, 토지 이용 및 도로망의 변화, 취락분포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추진과정과 주민들의 대응 등에 대해 시구개정사업의 내용이 실린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철거 성벽, 신작로 개설 등의 구체적인 변화는 지적도(1930)⁷⁾를 지적원도(1915)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중의 읍성에 대한 자료는 사진, 기록, 통계자료 등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지도분석에서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은 이들 자료 및 관련 인사들의 면담과 현지 답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시·공간적인 범위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읍성내로 한정하였다. 이는 자료취득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해석의 어려움에도 기인하였지만, 이 시기가 읍성 경관이 가장 심하게 변하였던 시기였고, 또한 변화가 중심적으로 나타났던 범위였기 때문이다.

2. 축성 배경과 입지

동래 읍성이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산동, 수민동 일대로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및 등기소 등의 행정기관이 밀집한 동래구 중심지역이다(그림 1). 인근의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과 함께 교통상의 요지로서 부산시의 부심 기능을 한다. 북문과 성벽이 복원되어 있는 마안령 일대는 현재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교(성밖 서쪽에 위치)에서 북문을 거쳐 충렬사(성밖 동쪽에 위치)에 이르는 길은 동래 북천동 고분군과 함께 향토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사진 1 참조).

1) 築城 및 修築 배경

조선시대 동래부가 속했던 동남 해안지역은 왜



그림 1. 동래부 읍성 입지(자료: 1:50,000 지형도; 등고선 간격 20m)

구 방어의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 중시되었다. 태조조에 이미 鎭을 설치하여 兵馬使兼判廳事를 두었고 세종조에 僉節制使로 개칭하여 현령을 겸하게 하였다. 1466년(세조 12) 鎭管 체제가 갖춰짐으로서 동래 현령은 節制都尉의 軍職을 겸하면서 慶州 진관에 속하는 여러 鎭중의 하나가 되었고, 1547년(명종 12) 도호부로 승격하였다(윤용출, 1989).

「동래」지명은 신라 경덕왕때 거칠산군이 개명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나 확실하지는 않다⁸⁾. 고려시대에 이미 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⁹⁾, 그 위치는 지금의 읍성보다 해안쪽에 위치한 수영구 망미동의 국군통합병원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김의환, 1974). 이 곳에서 이전하여 현재의 자리에 축성된 것은 고려시대말이다. 고려말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의 침탈을 겪으면서 동래에 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김해부사때 望山城을 쌓은 경험이 있는 박위가 古邑城에서 내륙으로 이동하여 1387년(우왕 13) 축성에 착수하여 한달 이상 걸려서 완공하였다'라는 내용과 이 성의 규모¹⁰⁾가 「慶尙道續撰地理志」에서의 기록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전하여 축성된 성이 현재 읍성과 동일한 장소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성문의 명칭 및 규모

	門樓	形態	規模(길이)	城門간 거리
南門	無優樓	翼城 (洗兵門·朱鳥門)	10步(60尺, 26,8m)	南門~西門 :235步, 630,1m
西門	心成樓	甕城	5步3척(33尺, 14,8m)	西門~暗門 :250步, 671,2m
北門	.	甕城	5步4척(34尺, 15,2m)	北門~東門:1,385步, 3,718,7m
東門	志喜樓	甕城	8步4척(52尺, 23,7m)	南門~西門:235步, 630,1m
暗門	隱一樓	.	1步(6尺, 2,7m)	暗門~北門:645步, 1,731,8m
寅生門	人和門	.		

자료: 「東萊府誌」(1740) '城郭條': 「東萊府築城瞻錄」(1731)

참고: 미터법의 환산은 布帛尺을 기준 계산된 것임

임진왜란 직전에는,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도 좌수영을 동래 남촌(현재 좌수영성)으로 옮기는 등이 지역일대의 군사방어기능이 강화되었다. 임진왜란 초기 부산진성과 동래읍성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고, 이후 동래는 군사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1655년(효종 6) 獨鎭을 설치하여 慶州 鎭管에서 분리되었다. 1739년(영조 15년)부터 동래부사는 守城將을 겸하게 되어 이후 東萊鎭兵馬僉節制事와 獨鎭兼守城將의 직함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동래부는 동남해안 변경의 독립적인 軍鎭으로서 동래 독진은 좌수영, 부산포진, 다대포진, 두모포진 등 해안 방어를 위한 鎭營과 함께 개항기까지 지역방어 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부산시사, 1995).

방어 기능이 강화됨과 함께 이 일대의 군사 시설에 대한 논의가 자주 있었으며, 18세기 들어 금정산성과 읍성의 증축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동래부 축성 공사는 숙종조부터 본격화되었고 이는 금정산성의 수축과 관련이 있었다. 그 이전에 금정산에 산성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702년(숙종 28) 산성의 수축이 있었으나 완료되지 않았고, 1707년(숙종 33) 다시 中城을 쌓았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커서 수비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약점이 드러나, 수축을 추진하던 경상도 관찰사 조태동은 원래 府治를 포괄하는 대규모 산성을 축조하는 것까지 계획하였다. 이는 완성되지 못한 채 1714년(숙종 40) 혁파되었다. 이와 함께 평지에 있는 읍성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1711년(숙종 37) 당시 동래부사 권이진은 금정산성의 지형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동래부성의 수축을 건의하였다. 그 뒤 1725년(영조 원년) 동래부

축성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변방지역을 지키는데 산성과 읍성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논란은 지속되었다. 결국 이 시점에서 산성을 포기하게 되었다. 특히 1728년(영조 4) 武臣亂이 평정된 후 영남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와 지역 민심 안정 등의 필요에 의해 전국적으로 평지 읍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윤용출, 1989). 1731년(영조 7) 부사 정언섭이 주도하여 대대적인 수축이 있었고¹¹⁾, 이후 4년 뒤인 1735년(영조 11) 부사 최명상에 의해 보루 15개소와 인화문이 건립되었다. 「東萊府誌(1740)」와 「東萊府築城瞻錄(1731)」에 나타난 성문의 문루와 규모는 표 2와 같다.

2) 읍성의 입지

(1) 조선시대 인근 營·鎭과의 연계

동래읍성이 위치한 지금의 마안령 일대의 지역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발굴되었던 유물로 보아 가야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 그림 2는 「海東地圖」중 동래부 지도의 일부이다¹³⁾. 다른 군현지도와 달리 읍성의 성벽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 지도의 편찬 무렵에 이루어진 수축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성안에는 鞍嶺과 客舍, 衙舍, 息波樓만 표현되어 있으며 향교는 지금의 위치와 다른 곳에 그려져 있다¹⁴⁾.

지도에는 당시 동래 獨鎭의 관할하에 있는 성곽으로 좌수영성, 부산진성, 다대진성, 금정산성과 함께 왜관이 표현되어 있다. 좌수영성에는 무관 정3품의 慶尙左道水軍節度使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 부산포 僉營使와 동래의 다대포, 해운포, 서평포,

울산의 두모포 등의 10개의 萬戶營이 있어 낙동강 동쪽에서 경주까지의 해상방위를 담당한 성이었다.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이후 축성된 성으로 임란 이전에는 내륙의 甌山을 주산으로 하여 입지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자성대는 당시 부산진성의 외성이었다. 임란이후 현재 자성대를 중심으로 성을 수축하여 釜山鎭 兪營使가 사용되었다. 금정산성은 동래독진의 수성장을 겸하였던 동래부사가 수비를 맡았으며, 유사시에는 동래, 양산, 기장의 소속군과 사찰의 승군이 차출되어 방어토록 되어 있었다(윤용출, 1989). 대대포진성은 낙동강 하구에 입지하여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는 요지였다. 대대포진은 원래 장림포에 있었으나 조선시대 초기 萬戶營이 설치되면서 이후 이전하여 본격적인 축성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들 鎭營들의 분포를 보면 현재 읍성이 입지한 마안령 일대의 장소가 각 鎭營에서 접근성의 총합이 가장 높은 지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고려말 고읍성 이전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고려되어 과거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마안산 아래의 산록과 평지가 읍성축성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추론된다. 축성된 후 이 일대는 동래부의 중심지로 등장하였고, 이어 통치 영역의 중심 공간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소의 중심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풍수적인 사고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지도내용의 공간 구성에서 시사하고 있다.

「海東地圖」의 구성을 보면(그림 3 참조) 마안령 아래 읍성이 위치한 장소는 지도의 중앙에 표현되고, 읍성외의 다른 지역 정보들은 읍성을 기준으로 설명되며 방향성이 매김되어 있다. 동래부 일대의 산세의 묘사 방법도 읍성을 중심으로 표현되며, 풍수적인 형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鷄鳴山 혹은 金井山을 祖山으로 인식하고, 輪山(현 구월산)을 鎭山으로, 馬鞍山을 主山으로 보아 산세의 흐름은 금정산에서 之자형으로 馬鞍嶺(鞍峴)에 이어지고 마안령에서 내청룡, 내백호가 客舍와 衙舍를 둘러싸고 있다. 案山으로서, 마안산에 대하는 산으로 농주산, 윤산에 배산, 금정산에 황령산이 표현되어 있다. 金井山에서 대대포로 이어지는 줄기와 上山(현 장산)으로 이어지는 줄기를 각각 外백호, 外청룡으로 그려져있다¹⁵⁾.

물길로서는 동헌과 객사를 감싸며 흐르는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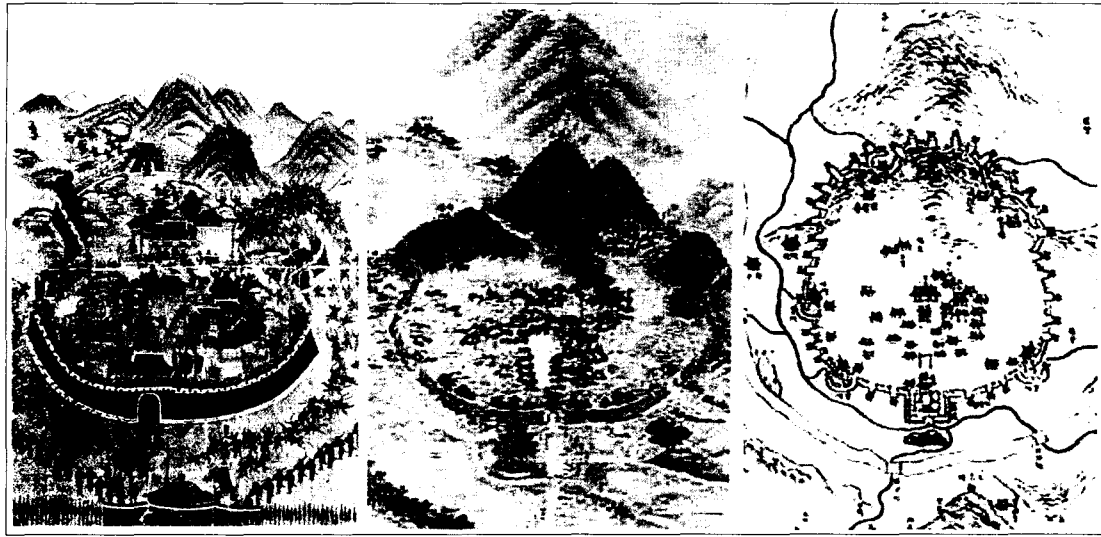
이 명당수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客水로서, 금정산에서 발원한 범어천(현 온천천)이 남류하다가 온천동, 명륜동, 수안동, 낙민동을 거치며 읍성을 휘감아 수영천으로 흘러가고, 絲川(현 수영천 본류)과 재송동에서 합수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군현지도에서도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이러한 구성체계는 풍수 형국으로 읍성 주위를 표현함으로써 읍성이 점유한 장소에 중심성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권력 지배집단의 장소 점유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도에는 읍치 통치 기능과 관련한 교육·의례기관이 성안 혹은 성밖에 표현되어 있다. 「海東地圖」에도 총렬사와 3단 1묘의 위치가 표현되어 있다. 총렬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공을 모시기 위해 1605년(선조 38) 동래읍성 남문밖의 농주산에 송공사(宋公祠)를 지어 제사를 지낸 것이 시초로 1652년(효종 3) 사액이 내려짐에 따라 총렬사로 되었다. 「3단 1묘」중 사직단은 읍성의 서쪽에, 문묘는 동쪽 향교 내부에, 성황단은 북쪽 진산 부근에 배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배치 원칙에 충실하다¹⁶⁾. 성황단은 신묘·성황에 수령이 직접 제사지내는 장소이며,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질서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유교적인 통치 이념 시행의 공백을 극복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착 신앙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미, 1998).

3. 조선시대 읍성내 공간구조

1) 고지도에 나타난 동래 읍성

그림 3¹⁷⁾은 고지도 중에서 동래읍성이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진 지도들이다. 「東萊府殉節圖」에 그려진 동래 읍성은 조선후기 수축되기 전의 읍성 모습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전투내용을 한 화폭에 담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부감법을 사용하였다. 그림의 윗 부분에는 동래 읍성 북쪽의 윤산이 매우 뚜렷하게 그려져 있고, 중앙부에는 성곽과 동서남북의 성문 및 문루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성내에는 산과 언덕, 수목 등을 그려서 지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사이에 대소



「東萊府殉節圖」(1709)

「東萊府使接倭使圖」(18세기)

「郡縣地方地圖」중 東萊府(1872)

그림 3. 고지도에서 묘사된 동래 읍성

관아와 민가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남문앞에 약간 높은 둔덕은 농주산을 그린 듯하며, 성내에는 객사를 중심으로 여러 관아들이 그려져 있다¹⁸⁾.

「東萊府使接倭使圖」는 동래부사가 倭使를 접대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을 회화로 표현한 그림 중의 일부로 윤산과 마안산이 진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취락과 관아 건물 외에 객사와 남문 사이에 큰 도로가 그려져 있으며 성문의 위치는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郡縣地方地圖」중 동래부지도는 읍성이 매우 강조된 그림이다. 익성과 웅성으로 이루어진 모습과 성을 둘러가면서 세워진 망루의 모습이 있어, 성이 훼손되기 직전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성안에는 객사와 동헌 등 관아건물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場市와 米廩이 표시되어 있어 성안 주민의 생활도 반영하고 있다.

2) 지적원도에 나타난 읍성 형태

(1) 성벽 형태 및 내부 구조

그림 4는 지적원도와 지형도를 바탕으로 읍성의 성벽, 성문과 도로망을 현재 지형도에 그린 것이다. 성의 동북쪽은 구릉성 산지에, 서남쪽은 평지에 입지하여 취락을 중심으로 산지를 뒤로 한 타원형의 형태로 전형적인 평산성이다¹⁹⁾. 성벽은 4대

문, 암문과 인생문 등 6개의 성문이 축조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읍성에서 4대문이 동서남북에 균형있게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래읍성의 경우 서·남·동문이 남서부의 평지에 집중되어 축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읍성의 북동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서쪽이 평지로 열려 있는 지형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인근 鎭營과의 연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에서 보면 남문은 광제교를 거쳐 양정-부산진성과 연결되며, 동문은 수영천의 이섬교를 거쳐 좌수영성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남문은 일본 사신을 맞는 문으로서, 다른 성문은 웅성으로 축조되었는데 반해 익성으로 축조하여 국가권력의 권위를 과시하는 문루로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서문으로는 금정산성, 낙동강으로 이어지고 또한 한양과 연결되는 영남로가 연결되어 있다. 동래 읍성에서 성문 배치와 문루 형태 및 후술될 동헌 정문 배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생문은 동문이 평지쪽에 위치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읍성내 도로망 형태는 성문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읍성 내부의 도로는 동헌과 객사를 중심으로 어긋난 형태의 十자형으로 4대문과 연결되어 있었다²⁰⁾. 객사와 동헌을 중심으로 남문과 서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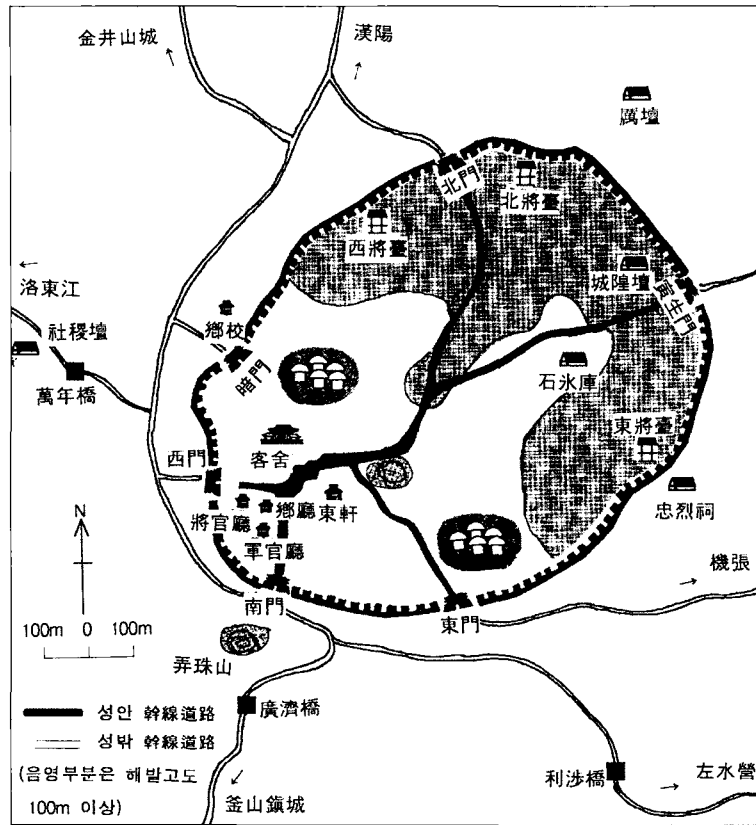


그림 4. 읍성 성문배치 및 도로망 분포(자료: 「지적원도」(1915), 「지형도」, 1:50,000)

연결하는 도로가 중심도로로 사용되면서 이들 주변이 성안의 중심 공간이었다. 이는 서문과 남문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동문으로는 이어지는 도로는 비교적 좁았다. 암문과 인생문으로 연결된 도로는 소로로, 통행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는 성안의 관아 건물을 지리지에 기술된 위치와 지적원도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그린 분포도이다. 건물들의 분포에서 제일 안쪽 중심 공간에 위치하여 관아들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객사가 위치하였다²¹⁾. 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안치하고 向闕望拜하는 장소로 중앙권력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온 관리와 사신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읍성의 중심공간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건물에 비해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이는 지형면을 이용하여 권력 질서의 수직적인 위계를 반영한 경관으로 볼 수 있다. 객사를 구성하는 건물 중 봉래관이 39칸

으로 가장 큰 건물이었다(김순일·조형래, 1996). 봉래관 북쪽에 정원루가 있었으나 송상헌 공의 비각을 모신 송공단이 임진왜란 후 입지하였다. 이외의 건물로 접대와 향연을 위한 적취정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으며 문루는 식파루였다.

동헌은 객사 동쪽에 위치하여 객사와 함께 읍성의 중심 공간에 입지하였다. 동헌을 중심으로 좌측에 동익랑, 해식당이 있었으며 북쪽에 관청, 군기고 등 군사 및 통치와 관련된 관아건물이, 서쪽으로는 서익랑 등이 배치되었다. 중심건물은 10칸 규모의 충신당이였다. 동헌의 대문으로는 독진대아문과 망미루가 있었다. 독진대아문은 동헌의 남쪽에 배치되어 부산진성으로 이어지는 남문과 연결되며, 망미루는 서쪽에 배치하여 한양과 연결되는 영남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워져 있었다. 지적원도에는 동헌 면적이 지금보다 매우 넓게 표시되어 있다. 동헌의 남쪽 부지(현재 사유부지)에 봉대청, 도훈도청, 작청, 공방 등 여러 관아 건물이 위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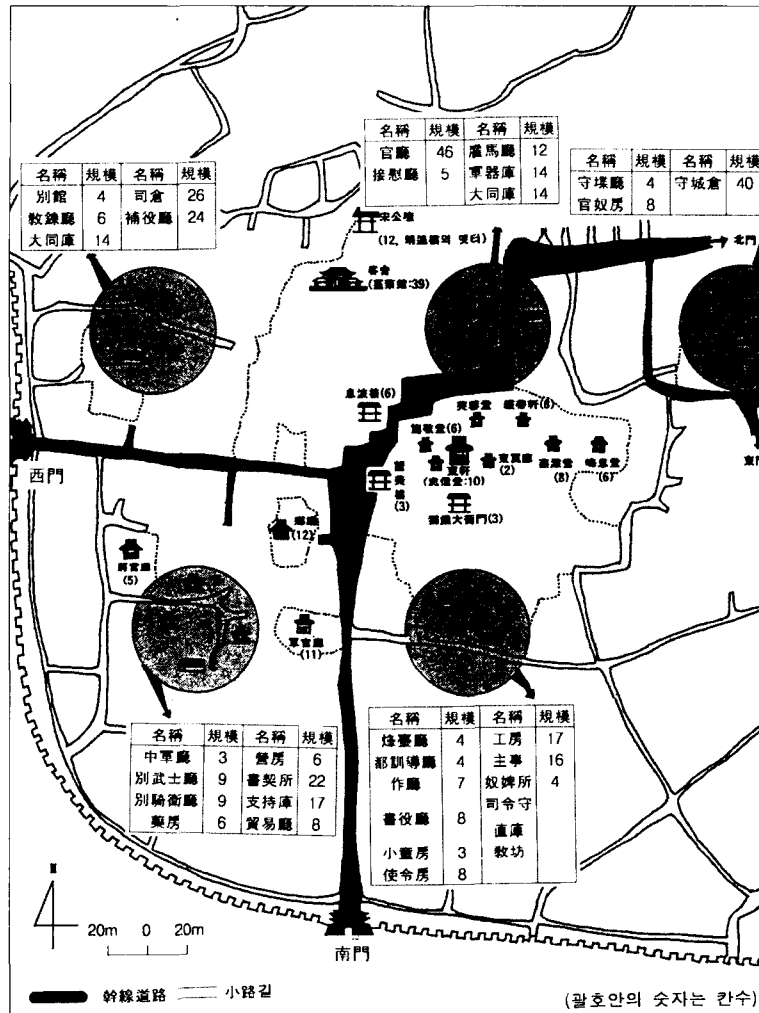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관아건물 배치 추정도(자료: 『慶尙道邑誌』(1832), 「지적원도」(1915))

동헌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었다.

객사와 남문을 잇는 간선도로의 서쪽에 향청, 군관청, 장관청이 위치하고 있었다. 향청은 동행랑 4칸, 서행랑 7칸, 남행랑 4칸 등 12칸으로 되어 있었으며, 1706년 장관청터와 바꾸어 중창되었다(『東萊府誌』, 1740)²²⁾. 장관청²³⁾은 본채 5칸, 행랑 11칸, 대문 1칸 규모의 건물로, 군관청²⁴⁾은 본채 11칸, 행랑 8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외의 관아건물로 별무사청(10칸), 별기위청(9칸) 등의 건물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읍성의 관아 건물들 볼 때 전체 구조는 객사를 중심으로 남문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헌 중심의 행정기능이, 서쪽으로는 군관청을 중심으로 군사기능이 배치되었다.

군사기능 건물이 우측(향좌측)에 집중 배치된 것은 읍성의 방어상의 요지가 남문과 서문 일대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2) 취락 분포 및 토지이용

그림 6은 지적원도를 이용하여 그린 취락 및 지역의 분포도이다. 북문쪽으로 이어지는 산록은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마안령에서 발원한 계류들이 산록을 따라 흐르고 있었으며, 이들을 따라 소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들 도로는 대부분 남아있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된다. 계류천 주변은 논으로, 산록의 하단부는 밭으로 이용되었다. 임야는 부분적으로 산록에 분포하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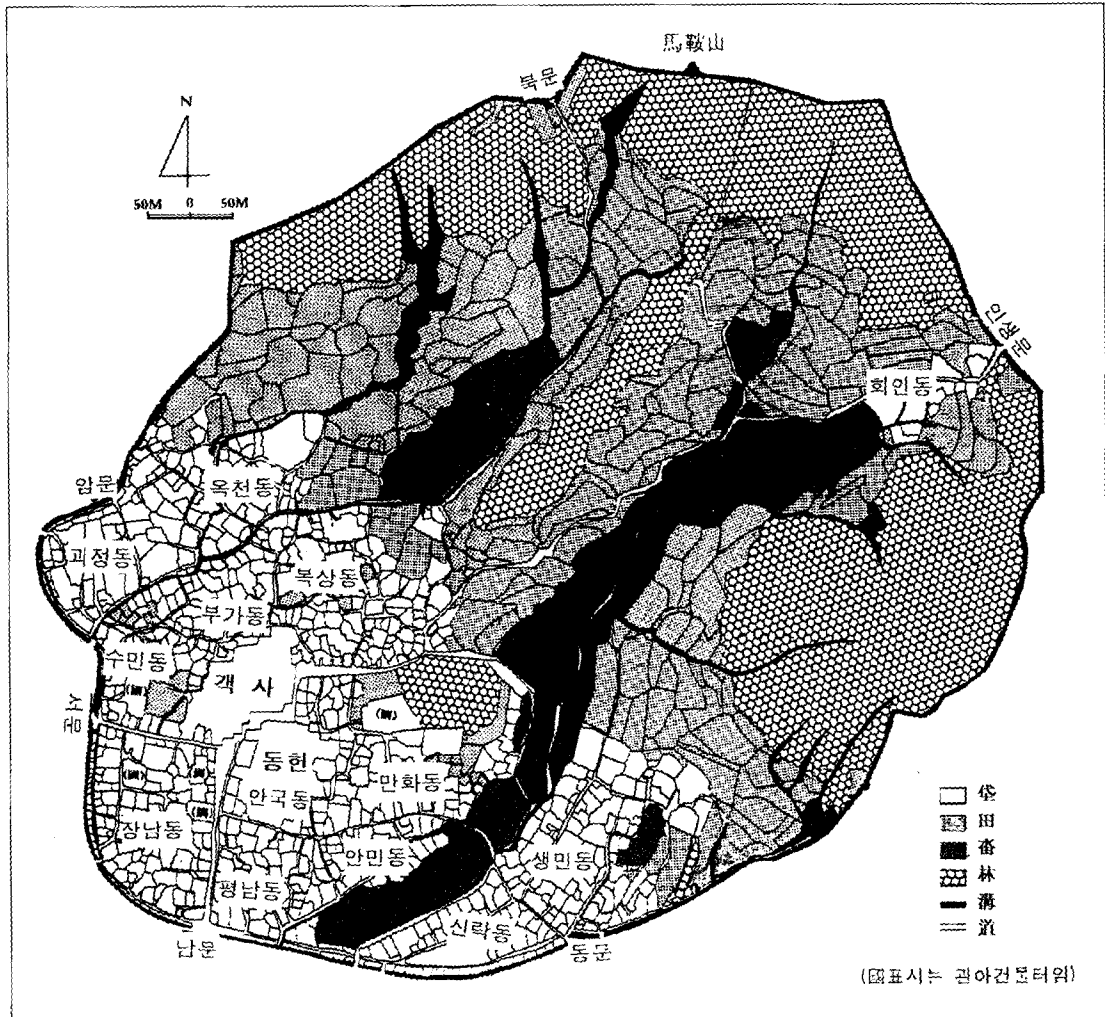


그림 6. 읍성내 토지이용 및 취락분포(자료: 「지적원도」(1915))

다. 취락은 관아건물 주위와 남문을 중심으로 남서부 평지에 분포하였으며, 특히 남문과 망미루 사이의 중심도로에 읍내장이 매 2, 7일 개시되었다²⁵⁾.

성안에 분포한 마을로는 13개 동이 있었다²⁶⁾. 객사와 동현이 위치한 부가동과 안국동은 성안의 중심지였으며, 남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양안에는 장남동과 평남동이 분포하였다. 동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는 만화동, 안민동, 신락동, 생민동이, 서문주변에는 수민동, 암문과 북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에는 과정동과 옥천동 그리고 북상동이 있었다. 북동부 산록면의 인생문 부근에 회인동이 위치하였다. 한편 성안에 우물이 6개가 있었다는

기록과(「동래부지」, 1740) 마을명에 옥천동과 과정동 등 물과 관련된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안에는 용수가 비교적 풍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3은 「家戶案(1904)」에 나타난 성안의 동별 호수 및 가옥 분포이다. 당시 읍내면은 성안과 성밖로 구분되어, 성안은 13개동 441호, 성밖은 11개동 304호가 분포하고 있었다. 성안의 동부인 과정동(42호), 옥천동(58호), 북상동(56호), 수민동(47호)과 서부인 평남동(55호)에 호수가 많고 지붕의 유형이 대부분 초가인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내 동부의 부가동(14호)과 안국동(13호)

표 3. 동래군 읍내면 성내의 동별 민가 호수 및 형태(1904)

	동 별	호 수	기와집		초 가	
			호 수	칸 수	호 수	칸 수
동부	괴정동	42	4	31	38	145
	옥천동	58	3	21	55	186
	복상동	56	.	.	56	208
	부가동	14	.	.	14	46
	안국동	13	1	5	12	50
	수민동	47	1½	14	45½	202
	장남동	26	1½	7	24½	111
서부	평남동	55	1½	14	53½	208
	안민동	35	2	13	33	135
	신락동	34	1	5	33	115
	만화동	20	.	.	20	66
	회인동	7	.	.	7	22
	생민동	34	.	.	34	158
소계	13동	441	15½	110	425½	1652

자료: 「慶尙南道東萊郡洞別家戶案」, 1904

에서 호수가 적은 것은 이 지역이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주요 관아 건물이 분포했기 때문이다. 서부의 회인동은 인생문 부근의 마을로서 호수가 7호에 불과하였다.

성안 가옥의 형태를 보면, 읍내면 전체의 평균 규모가 평균 38칸인데 반하여 기와집은 6.4칸이고, 초가는 3.7칸으로 기와집의 규모가 약간 크다. 한편, 성안의 평균 규모가 4.0칸으로 성밖의 평균 (3.5칸)에 비해 크다. 성안과 성밖의 초가는 각각 3.8칸과 3.5칸으로써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기와집의 규모는 성안(7.4칸)이 성밖(5.7칸)보다 훨씬 크다.

4. 일제강점기 읍성 경관 변화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지방제도의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1910년 10월을 기해 부산이사청(1905년 12월 설치, 구 시청자리)이 폐지되고 부산부가 설치되면서, 동래부 전체지역이 부산부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동래부는 행정구역상으로 일시 사라졌다가 1912년 10월 주요 시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행정 명칭상 동래군으로 부활되었다. 그후 1914년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동래군은 과거 동래부 일부와 기장군

을 합하여 부산부와 구별되는 행정구역이 되면서 경상남도에 속하게 되어 부산지역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부산시사」, 1995).

성벽의 기능이 상실되어, 성안과 성밖으로 뚜렷이 구분되던 도시 구조가 변화되면서 행정구역도

표 4. 일제초기 동래부 행정구역 변화

		1904년	1914년
행정구역명		경상남도 동래군 읍내면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동리수		13동	4동
구분	서부	괴정동 옥천동 복상동 부가동 안국동 수민동 장남동	북천동 수안동
	동부	평남동 안민동 신락동 만화동 회인동 생민동	낙민동 칠산동

자료: 「東萊와 海雲臺誌」, 1980

재편되었다. 표 4는 일제 강점기 전후 성안의 행정 구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괴정동, 옥천동, 북상동, 부가동 등은 북천동으로, 성안의 안국동, 수민동, 장남동, 평남동, 안민동, 신락동, 성밖의 남문동, 율복동 등이 수안동으로 개칭, 통합되었고, 성안의 신락동과 성밖의 회용동을 합쳐 낙민동으로 되었다. 만화동, 회인동 생민동은 칠산동으로 되어 이전에 서부와 동부로 구분되었던 13개 동리는 4개 동으로 되었다. 이후 부산부의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래군의 영역이 점차 줄어들었다. 1942년에 동래읍에 부산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북천동과 칠산동이 북산동으로 통합되었고 해방후 1959년 수안동과 낙민동이 합하여 수민동이 되었다(「東萊와 海雲臺誌」, 1980)

1) 시구개정사업과 성벽 철거

일제 강점기초 부산의 도시 계획이 초량에 위치 하였던 일본 조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두리에 위치한 읍성은 이의 영향을 덜 받았다. 따라서 강점기 초기에도 성벽을 중심으로 한 읍성은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25년부터 시작된 시구개정사업으로 성벽이 철거되고, 성안과 성밖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東萊區誌」, 1995).

표 5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1926년부터 1933년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들의 제목이다. 일제의 성벽 철거에 대해 당시 주민들의 표면적인 반대나 저항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이전에 성벽

이 방치되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읍성이 지니는 상징성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신문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 시구개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시구개정 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다룬 1926년의 기사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東萊에서는 시구개정의 巨役을 昨年중에 예정선을 확정하고 당국의 허가를 得한후로 동년도는 예산관계상 남북간선의 一條만을 완성코져 방재공사중인데 此에 대하여 未詳한 점이 有하다 去25일에 동래기영회관에서 民民유지대회를 개최하고 ...기회 결정허가된 예정선은 일반면민에게 이해관계가 만흔즉 절대로 변경이 無케 하기를 豫先警告하고 동시에 郡當局에 대하여 보통학교 교장사택기지 일부로 金후 道路編入殘部를 시구개정 上 毫分의 損失이 無한 日本人菓子商 秋良某에 할가로 암암리에서 매각하였다는 不合理的無誠意한 조치를 질문하여 該賣約을 절대파기하고 公明正大한 조치를 요망하되 此에 불응할시는 民民대회를 개최하여 최후의 수단까지 강구하기로 결의하고... (1926. 10. 29)」

이 기사에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은 이 사업의 진행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관련하여 의혹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면민대회를 개최...’ 하겠다는 결의는 시구개정사업에 대하여 조선인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사업이 본격화된 1928년의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동래 시구개정사업 내용이 실린 신문 기사 제목

	기사일자(면, 단)	제 목
1	1926. 10. 29(4) 3	동래면 유지대회-시구개정문제
2	1928. 10. 10(4) 7	시구변경반대동래구민대회 내13일에 개최할터
3	1928. 10. 17(3) 2	시민대회개최 시구개정축성, 동래면에서
4	1928. 10. 25(3) 1	시구개정변경반대 동래유지대회 제2차로 20일에개최
5	1928. 12. 4(4) 4.	협의원 사직에 면장까지 사직, 군수태도가 최주목처-동래시구변경문제-
6	1928. 12. 9(4) 3.	군당국교섭으로 면의사표보류, 금후실행위원태도가 주목--동래시구변경문제-
7	1928. 12. 28(4) 2.	시구개정문제 금후 방침을 질문, 군수에게 책임을 질문키로, 동래면민유지대회
8	1929. 12. 11(3) 1	「변경은 민의무시 예정선을 실시」 관계책임자를 규탄하며, 동래면민대회속회, 시구개정에정선으로
9	1930. 12. 17(3) 8	개인 까닭에 시구공사중지, 동래면 시구개정공사에 면에서 수용령 적용
10	1931. 3. 5(3) 1	시구개정중단은 불가, 군당국의 무능을 연함(동래 일기자)

자료: 동아일보 기사색인, 25-31, 동아일보사

「동래면은 점점 발전함을 따라 도시의 면목을 躍如케 할 필요가 있다하여 년전 면당국에서 시구개정선로를 확정하고 爾來工事に 착수하여 着着 그 실현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면민은 그로 말미암아 住屋을 일코 市外에 土窟生活을 하는 慘狀을 연출케 되었었다. 그러나 오죽 市區의 美觀經濟關係의 敏活이라는 이유하에 다수 시민은 사생활의 희생을 當코도 이것을 달게 너길수밖에 없었는데, 今般 西門에서 東萊高普校에 니르는 동서선에 잇서서 시민의 住屋은 勿論撤去하얏거니와 오죽 동래군청의 宿直室及正門이 철거된다는 이유하에서 직통선을 실현하지 못하고 此를 迂廻하여 시구의 미관을 고사하고 일중 독특한 도로를 만들어 方今 공사중에 있는데 모든 것을 면당국의 설계와 계획하에 是從하든 면민들도 그의 너무나 전횡함과 시구 개정의 근본 정신을 沒却함에는 그저 있을수 없다하여 그동안 물의가 분분하든바 거 오일 동래 유지자 20여인이 발기가 되어 내 13일 정오에 시민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집합장소는 동래기영당이라 하며 일반 시민은 하나도 남김없이 참석하여 장차 발전도정에 있는 동래시구의 미관을 위하여 다가티 반대의 기세를 올리기를 바란다더라(1928. 10. 10)」

이 기사에는 시구개정 사업으로 인하여 ‘...토굴 생활...’ 등의 표현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즉 성벽에 사는 주민들은 오로지 동래 발전을 위하여 직선상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참담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성벽 철거를 감수하였으나, 일방적인 공사 변경에 대해 분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기사에서 비난하는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주체인 동래군청이었으나 암묵적으로 일본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시민대회의 장소와 시간까지 전달하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듯한 분위기가 내재되고 있었다. 이 기사가 나간 후에 동래 군청의 관계자들이 사표까지 제출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1928. 12. 4 기사). 당시 동헌은 동래군의 청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군청을 지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일제는 다음과 같이 동래군청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되는 것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현군청사는 古代建物로 現今의 正門이 잇서야 비릇오 官舍로서 體裁가 되는 동시에 官廳으로서의 威信도 保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개의 이유는 既定대로 직선도로가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현정문은 물론 숙직실과 창고가 업서지는 바 그 建築費는 國庫에서 辦出되는것임으로 現今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업슨즉 期於히 迂廻하여 달라는 것인데...」(1928. 10. 25)」

이 기사에서 보면 조선시대 동헌 부지의 대부분이 당시의 군청부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도로가 우회하여 건설되었다면 동헌부지는 원래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헌의 넓은 부지를 일제 군청자리로 그대로 내준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었고, 이에 표면적으로 주민 희생을 내세워 반발하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2) 읍성 공간구조의 재편

그림 7은 시구개정사업 완료 직후 제작된 지적도(1930)를 이용하여 성벽, 도로 및 지목, 취락의 분포를 그린 것이다. 그림 6과 비교하여 보면 두 시기간 경관 변화의 내용이 잘 나타난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벽 철거, 신작로 개설 및 취락의 확대와 토지이용 변화이다.

(1) 성벽 철거 및 도로망 변화

서장대 주변-북문-인생문-동장대 주변 지역(그림 7 A지점) 등 마안산의 능선에 있는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벽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특히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성벽은(B, D 지점) 철거되면서 간선도로가 신설되어 시가지 교통수단인 전차 노선이 부설되었다²⁷⁾. 남문과 동문의 성벽을 철거하여 신설된 도로는 동해남부선 철도와 나란히 달리도록 하여 이 지역의 중심도로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성벽 철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구개정사업의 주목적이 간선 도로망 개설이었고, 이를 통해 읍성은 식민지 도시로 편입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한편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던 동문과 암문 일대의 성벽(B지점)은 가옥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사진 2는 1940년대 동래고등학교를 찍은 사진으로 학교 뒷편에 세워진 가옥들은 규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점선 부분). 지적도로 분석한 결과 가옥이 들어선 자리는 성벽 철거지점과 일치하였다. 현재에도 이들 가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가옥 밑에 성벽의 돌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²⁸⁾. 성벽터에 이와 같이 일정한 규모의 가옥이 세워진 것은 철거로 생겨난 부지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불하한 결과로 생각된다. 불하 이유가 성벽철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성벽과 인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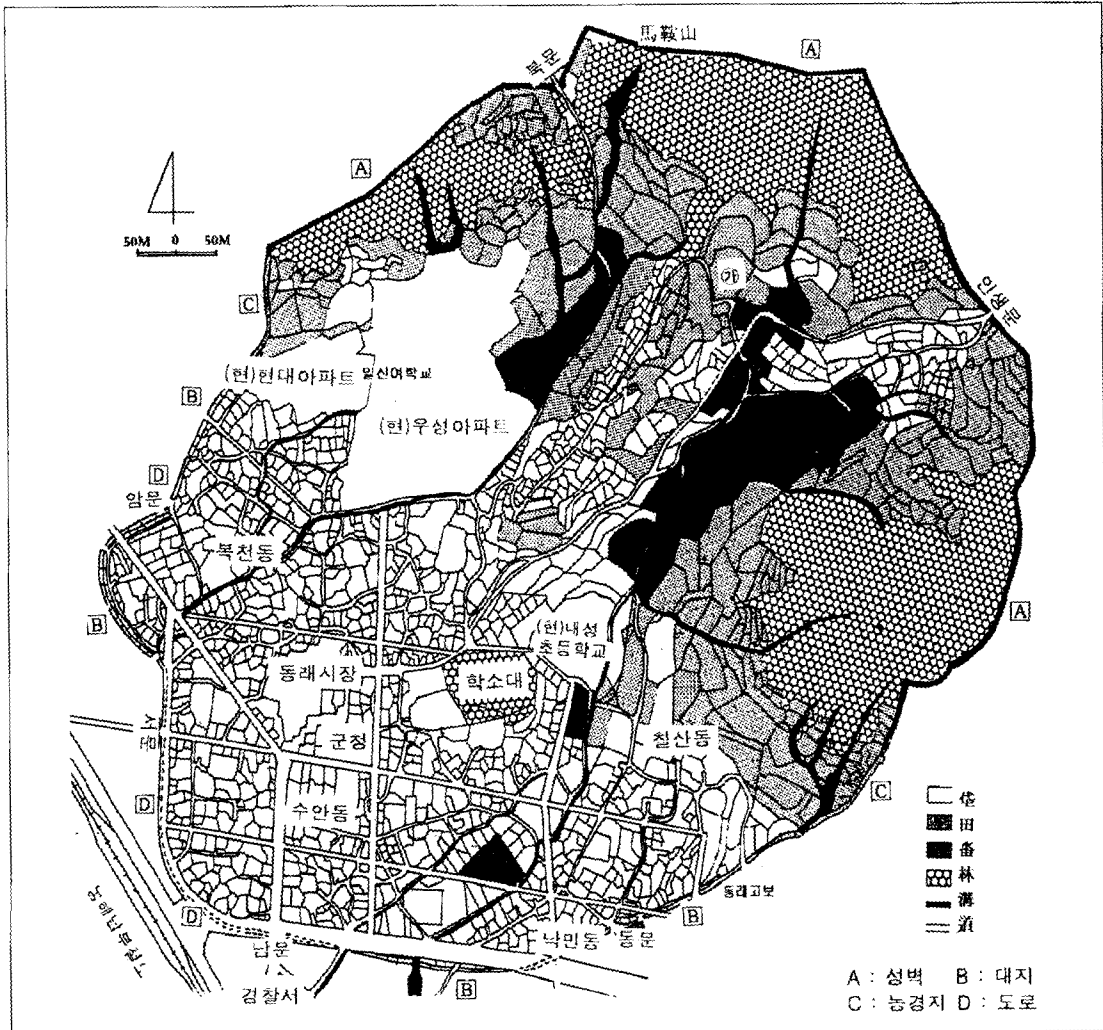


그림 7. 일제강점기 성벽철거 및 토지이용 변화 (자료: 「지적도」, 1930)



사진 2. 1940년대 동래고뒤 가옥분포(점선이 성벽자리임)(출처: 동래고등학교 역사관)

가옥에 거주하는 빈민층 주민들에게 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능선에서 평지에 이르는 완만한 경사지로 동장대~현대아파트 옆 일대와 서장대 아래~동래고등학교(C지점)의 성벽은 자연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농경지로 이용되었고 성들은 밭의 축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성벽 자리에 주간선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성 안에는 신작로가 격자상 직선 형태로 신설되었다. 동서 방향으로 4개의 도로가, 남북방향으로는 5개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와 같은 도로망의 신설로 객사와 동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공간구조는

변화되었고 현재 동래 구청자리(그림 7의 서문 북측 120m 지점)를 중심으로 새로운 결절지역이 형성되었다. 성안의 인구 증가와 함께 산록 사면지역으로 취락이 확대되어 갔으며, 일본식 가옥 경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지 면적이 축소되었다. 특히 동헌에서 인생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북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으로 취락이 확대되었다. 인생문의 주변지역과 현재 복천동 고분군에 집중적으로 가옥이 분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생문과 연결되는 산록의 구도르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소로가 개설되었다. 현재 고분군이 있는 곳에도 취락이 형성되어 그 위에 도로가 건설되었다. 신설 도로중 일부 지점은 지맥을 끊는다 하여(그림 7의 ㉔지점) 주민들의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천은 생활용수로 사용이 어려워져, 배수로 기능만 하였다.

(2) 관아 건물 철거와 공공건물 입지

일제강점기 지방관제 공포로 식민지 통치를 위한 행정·교육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성안의 관아 건물들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부분의 관아건물이 위치하였던 토지가 국유지로서,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일부 건물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 이들은 이후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읍성의 객사는 강점기 초기에 내성 보통학교로 이용되다가, 이후 초등학교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후에 객사건물은 철거되고 동래 공설시장으로 지정되면서 과거 객사의 흔적은 없어졌다(사진 3 참조). 원래 동래장은 전술된 바와 같이 객사와 남문을 잇는 간선도로에 읍 2·7일 개시되면서 장이 열리다가 1924년에 1호 공설시장으로 지정받은 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동래 제일고보의 공지에서 열리다가 1937년 객사자리로 이전하였다²⁹⁾.

동헌은 동래군청 청사로 이용되었다. 이후 시구 개정사업에 의해 충신당만 원래의 위치에 유지되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이전되거나 철거되었다. 동헌의 서익랑은 철거되었으며,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은 온천장에 위치한 금강공원으로 이전되었다(「부산의 문화재」, 1993). 부지가 축소되면서 동익랑이 충신당 가까이 옮겨지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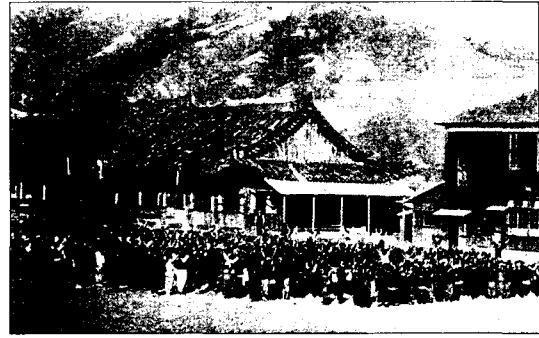


사진 3. 1930년대 객사에 위치한 초등학교
(출처: 「사진으로 본 東萊百年」(1995))

다. 과거의 군관청과 향청의 경우 민간인에게 불하되었고, 장관청은 공공장소로 이용되었다. 한편 총렬별사가 있던 성밖의 농주산은 헐리면서 그곳에 동래군청과 함께 식민지 통치 기관인 경찰서가 입지하였다(「동래구지」, 1995).

일제강점기 중 성안의 토지이용 변화를 광범위하게 주도하였던 것은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이었다. 1919년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당시 좌천동에 있던 일신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가 이전하여 복천동 일대(현재 우성아파트 자리)의 부지에 설립되었다. 한편 현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인 동래고등보통학교는 원래 사립동래동명학교로 성벽에 접한 자리(현재 학산여중 자리)에 입지하고 있었다. 1913년 칠산동 학소대 아래에 있던 수성청 부지(595평)에 이전하였다가, 1922년 공립으로 관리 이전되면서 현재 부지로 이전하였다(「東萊區誌」, 1995). 동래고등학교는 성벽을 일부 허물면서 입지하였고, 당시 교문 등에 읍성 동문의 홍예가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³⁰⁾.

3) 읍성 경관의 잔존 형태

표 6은 읍성 경관 요소의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 나타난 변화 내용을 종합하고 현재의 도시경관에 남아있는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조선-일제강점기 중 나타났던 경관 변화의 내용은 지금의 도시경관에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 성벽 시설로서 일부 산록의 성벽, 북문, 동·서·북장대 등의 건축물이 복원되어 있다. 문루는 철거되었으나 그 위치에 표석이 설치되었다. 일제 강점기중 철거된 성벽의 흔적은 간선도로나 미로형 골목길, 가옥의 규

표 6. 동래 읍성의 경관요소 변화 과정

구분	구성요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재(잔존형태)	
변화 단계 변화 요인		立地(고려말)-修築(1731) 군사·방어 중심기능	훼손 및 철거(1930) 식민지 도시 계획	일부 복원 도시화·역사의식고양	
성곽 시설	성벽	산능선	유지 및 훼손	복원 사업 진행	
		산록	훼손	석축 일부 남아 있음	
		평지	철거	간선도로, 골목길, 대지	
	문루	동·서·남문	옹성 및 익성으로 수축	철거	標石(도로)
		북문·인생문	옹성 및 문루 수축	훼손	일부 복원
기타시설	포루, 장대 수축	훼손 및 철거	일부 복원		
주요 관사, 청사, 창고, 건물.	객사	蓬萊館	59칸(1705년 중창)	보통학교-공설시장	없어짐(동래시장)
		靖遠樓	宋公壇 설치	훼손	보존(송공단)
		기타 부속건물	息波樓, 積翠亭 등	철거-공설시장	없어짐(동래시장)
	동헌	忠信堂	10칸	동래군청-양산보건소	일부 보존
		望美樓	1742년(東萊都護府 扁額)	금강공원 이진	標石(도로), 이전보존
		獨鎮大衙門	1655년 慶州鎭管에서 獨立	금강공원 이진	標石(농협), 이전보존
	將官廳	5칸(1706년 이진)	민간인에 불하	보존(동래기영회)	
	軍官廳	11칸(1709년 중창)	충렬사 이진	이전보존(신한은행)	
	鄉廳	12칸(1706년 중창)	훼손	없어짐(음식점)	
	其他 官衙建物	作廳, 官廳, 軍器庫 등	불하 및 훼손	없어짐(시가지)	
취락 및 토지 이용	동리	13개 동리	4개 동	2개 동	
	도로망	자연발생적 미로형	격자상 신작로 신설	도로 확장 및 신설	
	가옥	초가 및 기와집	일본식 가옥 건설	단독 주택 및 아파트	
	공공기관	관아 건물	군청 및 보건소	문화재로 일부 보존	
	장시	망미루-남문에 형성(27장)	공설시장(객사자리)	상설시장(정기시 이전)	
	농경지	논·밭으로 이용	보통·중등학교 신설 가옥 및 공공부지	일부이전-아파트 부지 가옥부지로 전용	
하천	우물 및 생활용수 이용	하수 및 생활 배수로	복개후 도로망 개설		
성밖 관련 시설	충렬사	순절 위패와 사액서원	유지	문화재 보존	
	충렬별사	弄珠山에 별사 모심	鑿平후 경찰서 입지	標石(동래경찰서)	
	향교(文廟)	소실후 이진	유지	문화재 보존	
	3壇	厲壇, 城隍壇, 社稷壇	자연 훼손	社稷壇에 標石(주택지)	

칙적인 배치 형태로 남아 있다. 관아 건물로서 객사가 있던 자리는 현재 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헌의 일부 건물과, 송공단 및 장관청은 보존되어 있다. 동헌의 부속건물과 군관청 및 향청이 있던 자리는 사유지로 이용되고 있다. 망미루와 독진대 아문, 군관청은 이진되어 복원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중 형성되었던 도시 경관은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읍성 내부의 격자상 도로, 학교 및 공공기관 입지, 시장 입지, 동지명 등이 이의 예이다. 정기 시장은 이전되어 현재 노포동 지하철 역에서 매 2·7일 개시되고 있다. 하천은 대부분 복개되었으며, 농경지는 주택부지로 전용되었다. 산록 일부에서 농경지가 분포한다. 토지

이용 밀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교육기관이 이전되고,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구가 입지하였다.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부심으로 기능하면서 상업지역이 확대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동래 읍성의 성벽 및 문루, 관아 시설, 취락 및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조선-일제 강점기 중 나타난 경관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고지도 및 지리지, 일제시대 발행된 지적원도(1915) 및 지적도(1930) 등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현지답사를 통해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읍성이 입지한 장소는 역사 시대마다 중앙 정치세력의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일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왔던 공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정치세력의 변화는 읍성 경관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음이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당시 동래 읍성의 경관은 일반적인 도시 계획의 형태를 바탕으로 읍치 지형과 읍성 기능, 중앙 권력의 상징성과 장소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이 중시되면서 구성되어 있었다. 평산성으로 축조되면서 해안 鎭營 등 각 군사 요충지로부터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남서부 평지에 서문, 남문, 동문이 편중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주 가로망도 변형된 십자형을 이루었다. 동헌의 대문인 독진대아문이 남문을, 망미루가 서문을 향해 배치된 것은 문루의 배치와 읍성 주위의 도로망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객사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입지하면서 권력 질서의 위계를 반영하였다. 관아건물의 배치는 일반적인 원칙에 충실하였으나 군관청, 장관청 등의 배치가 특이하다.

2) 일제강점기 중 나타난 경관변화를 볼 때 다른 읍성에 비해 보다 철저하게 목적 의식을 지니면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강점기 초기 객사자리에 교육기관이 입지하여 현재에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 읍성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동래 객사의 경우 초기에 교육기관으로 이용되었다가 강점기 중 시장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진왜란시 순절 열사들의 위패를 모신 충렬별사가 있던 농주산을 헐고 경찰서를 배치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점기중 시행되었던 시구개정사업을 통해 읍성 경관은 본격적으로 훼손되었다. 평지 성벽자리에는 대부분 간선도로가 개설되었다. 성안과 성밖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신작로들이 격자상으로 개통되면서, 성벽과 문루가 지녔던 상징성은 상실되었고, 관아 건물과 성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읍치의 공간구조가 변화되면서 식민지 도시 공간으로 편입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동래 읍성에는 고려말-조선시대의 생성 및 발전단계, 일제 강점기 중 훼손

및 철거단계를 거쳐 현재 일부 복원단계 등 3단계로 경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읍성이 위치하였던 장소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역사 경관들은 각 시대적 단계에 형성된 장소적 성격이 투영된 결과물들이다. 그리고 현대 도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장소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도시에 남아 있는 우리 나라 읍성들은 단순한 역사성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소임을 전제로 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주며, 이는 중앙 집권화된 공간 구조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註

- 1) 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의 先秦시대의 기록 등에 「三리의 城, 七리의 郭」이라는 기록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城郭의 용어에서 城은 내축의 城壁으로서, 궁전이나 지배자가 사는 구역을 말하며, 이 성벽 주위에 발달한 시가지를 郭으로 둘러쌌던 것이라 보여진다. 이 용어에서 볼 때 殷代, 周代에 나타난 중국 도시 발달은 邑→城→郭의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이상구, 1983).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읍성의 경우 내외성으로 구분되지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곽' 용어를 읍을 둘러싸면서 축조되어 있던 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성벽', '성문' 등의 용어는 성곽 시설중의 일부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 2) 우리나라 대구부의 연구사례를 보면 성문내에 성문외에 비하여 中人, 賤人 및 奴婢의 비율이 높고, 양반과 良人의 비율이 낮았다. 읍성의 성안에는 일반적으로 관인과 향리들만이 거주하였으며, 간혹 양반들의 別邸가 있었다. 그리고 상인이나 工匠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獨立外居奴婢 들은 모두 성밖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손정목, 1984).
- 3) 이 문서(奎章閣 11076)는 1731년(영조 7) 동래부에서 읍성을 수축한 후 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정리한 기록한 것이다. 동래부에서 편찬한 이 필사본의 瞻錄에서는 축성 공사의 진행과정과 동원된 役夫의 수, 府城에 관한 節目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윤용출, 1989)
- 4) 1731년(영조 7) 동래읍성을 수축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력을 적어 1735년(영조 11) 건립한 것이다. 이 비는 동래읍성 연구 및 조선 후기 건축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동래읍성 남문에 있었으나, 온천장 금강공원에 옮겨졌다(부산시, 1993, 부산의 문화재, 214)
- 5) 1911년에 실측되고, 1915년부터 사용된 지적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측량도면으로 구한말 토지의 필지별 소유와 도로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부산에 소재한 정부보관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다. 본 지도의 구획은 조형래

- 선생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6) 1904년 편찬된 이 문서(奎章閣; 17947)는 洞·面 단위로 居民 家戶數, 草家 및 瓦家의 가옥분포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읍성내 동별 호구수 파악에 유용한 자료이다.
 - 7) 시구개정사업 완료직후 제작된 지적도이다. 동래구청에 소장되어 있다.
 - 8) 동래부의 지리지에서 기재되는 장산국과 거칠산국이 동일 국가인가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지도에서는 현재 해운대 뒤의 장산 산록에 古國基, 혹은 眞山國基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고증은 좀더 필요하다.
 - 9) 「修東萊郡城…」(「高麗史」, 「兵志」, 1021)
 - 10) 둘레 3,090척, 높이 13척, 우물 6개.(『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城郭條」)
 - 11) 구성곽의 규모는 둘레 3,090尺 (약1.4km)*, 높이 13尺 (약 6m)에 불과한데 비하여 수축된 성곽은 둘레 17,219尺 (약 7.7Km), 높이 17尺(약 8m), 여장(1,318塚)에 이른다(「東萊府志(1740)」, 城郭條 :m 환산은 布帛尺을 기준 계산된 것임).
 - 12) 현재 동래부 읍성안에 입지한 복천동 고분군은 남부지방 최대 고분군 중의 하나로, 가야 및 신라의 다양한 출토 유물이 발굴되었다(부산직할시, 1993)
 - 13) 이 지도는 조선 후기 18세기 발행된 지도 중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한 근현지도로 평가받고 있다(양보경, 1995).
 - 14) 동래부 근현지도마다 향교의 위치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18-19세기 향교 이전에 따른 것이다. 임진왜란때 향교가 소실되면서 이후 여러 차례 이전하였다가 1813년(순조 13) 현재 위치인 명륜동으로 옮긴 것이다(김승찬, 1993).
 - 15) 읍성 주변의 이와 같은 형국에 대해 龜臺下山形, 也字形, 혹은 鶴山形으로 설명되기도 하나(장영훈, 1988), 이에 대한 해석은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16) 일반적으로 도성에는 중앙에 궁성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전후좌우로 배치된다. 궁의 左側(右右側)인 東便에는 조상을 모시는 宗廟를 배치하고, 右側(向左側)인 西便에는 토지와 五穀의 신을 모시는 社稷壇을 배치하고 있다.(형기주, 1985a)
 - 17) 이들 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김기혁, 2002, “부산지역의 고지도 연구,” 향도부산, 18, 391-455.
 - 18) 최근(2002, 10월) 구읍성의 성지가 복천박물관에 의해 일부 발굴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19) 우리나라 읍성의 구분은 입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입지 장소에 따라 平地城, 平山城, 山地城, 혹은 平野地, 臨海地, 沿河地, 山岳地城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백인길, 1989)
 - 20) 우리나라 성내의 도로망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T자형이다. 남문과 객사를 축으로 하는 가로가 남북 중간선로를 이루고, 동서간선로는 남북 주축로와 어긋나게 마주쳐서 三叉路를 형성한다(이상구, 1983)
 - 21) 우리나라 읍성계획의 공통되는 특징은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인 객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고, 서측에는 문관이 사용하는 본부 향청이 있으며, 동측에는 中營, 訓練

- 院, 軍器庫 등이 배치된다.(윤장섭, 1976).
- 22) 향청이 있던 자리는 지금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원에 향청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정원석으로 남아 있다(1999년, 8월 답사).
- 23) 이 건물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동래기영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 24) 건물은 충렬사내로 이전되었고, 그 자리에 현재 신한은행이 세워져 있으며 앞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 25) 일제 강점기 이전 개항기부터 초량에 중심기능을 빼앗겼으나 동래시장은 꾸준히 존속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해산물이 주요 취급품목이었던 이 시장은 1901년에는 농산물 중심으로 기능 변화를 하였으며 거래액은 연 198,200원이었다. 당시의 재화집산지역은 동래, 양산, 기장, 경주, 경성, 안동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특산물로써는 담배, 대구어, 청어, 염 등이 거래되고 있었다(김기혁, 1987).
- 26) 원래는 성안에 대정동, 미정동, 북문 노상리, 북문 노하리, 당리, 서문 노상리, 서문 노하리, 남문 서변리, 수문동, 당하동, 남문 동변리, 신항교동, 지동, 휴산동 등 9동 5리가 있었으나 이후 통폐합된 것이다(「東萊府誌」1740).
- 27) 일제 강점기 부산의 전차시설은 1910년 3월 부산진~초량선이 부설되었고, 부산~동래간은 경편과 전차를 겸용할 수 있게 건설되었다. 시내선은 1916년 9월에 개통, 운행되었다. 이후 1927년 10월말 동래선이 온천장까지 연장되었다.(「부산시사」, 1권 1989).
- 28) 현지답사로 확인(1999년 8월).
- 29) 이 일대에서 열렸던 정기 시장은 초기에 상설시장과 병존하였다. 이후 시가지 확대로 철거령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 온천동 비석거리, 1972~1973년경에 부곡동 오시계, 1982년에 구서동으로 이전하여 계속 개시되었다(김기혁, 1987).
- 30) 현지답사 중 흥예로 보이는 돌들이 학교 정문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과거 학교정문에 사용되었던 돌이었다는 설명이 있었다(1999, 8월)

文 獻

- 김기혁, 1987, “대도시 정기시장 기능연구 -부산시내 정기시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4, 381~398.
- 김기혁, 2002, “부산지역의 고지도연구,” 향도부산, 18, 391-455.
- 김덕현, 2002, “경상도읍치의 역사적 경관조사 연구,” 대한지리학회 2002 춘계학술대회요약집, 91-98.
- 김선범, 1989, “지방도시의 전통공간보전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계획, 24(2), 79-93.
- 김순일, 조형래, 1996,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아건

- 축에 관한 연구,” 항도부산, 13, 159-222.
- 김승찬, 1993, “17·18세기 부산의 문화,” 항도부산 10, 193-215.
- 김영주, 1983, “조선시대 읍취락의 발달요인에 관한 역사지리적 고찰,” 지리학보고, 56-66.
- 김의환, 1974, 부산의 고적과 지명, 부산시
- 김종원, 1975, 부산의 도시성장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만, 김철수, 1982, “한국 성곽도시의 발전과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17(1), 27-40.
- 맹홍규, 1988, 조선시대 성문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1995, “조선후기 동래부의 역사지리 연구” 부산지리, 4·5, 67-88
- 백인길, 1989, 조선시대 읍성의 입지에 따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 보고서
- 부산시, 1978, 부산의 역사, 부산시 내무국 문화재과.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시사, 전4권, 부산시 부산직할시, 1989-1995, 부산시사, 1-5권
- 부산직할시, 1993, 부산의 문화재.
- 손영식, 1987, 한국 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 손정목, 1984, 조선시대의 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손정목, 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서울: 일지사.
- 양보경, 1998, “한국의 옛지도,” 한국의 옛지도(자료편), 영남대학교, 114-127.
- 양보경, 2001, “군현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 해동지도 3권, 규장각(영인본), 60-76.
- 예명해, 최창길, 1994, “지방도시의 전통공간 보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9(3), 99-123
- 옥한석, 1982, “마산시 경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 26,15-51
- 윤용출, 1989, “18세기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 2, 83-128.
- 윤장섭, 1976, 한국건축사, 동명사
- 이경미, 1998, “지지 및 지도의 표현요소와 환경인식,” 한국의 옛지도(자료편), 영남대학교, 128-138.
- 이상구, 1983,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 여지도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완영, 1963,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소고,” 항도부산, 2, 11-75.
- 이재욱, 1988, 보령지역 성곽에 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준선, 1980, “신라 당항성의 역사지리적 고찰,” 관동대학 논문집 8, 273-290.
- 이호열, 1999a, “일제하 대구 읍성의 철거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건축과학기술, 2, 235-246
- 이호열, 1999b, “조선시대 대구읍성의 축성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과학기술, 2, 175-191.
-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학연문화사
- 장영훈, 1988, 부산의 풍수, 한국 평론.
- 정길자, 2000, “송상현 공 종가소장 東萊府殉節圖 연구,” 대학발전연구논문집, 20, 부산경상대학.
- 최기엽, 2001, “조선기 성읍의 입지체계와 장소성,” 응용지리, 22, 3-30.
- 형기주, 1985a, “도시계획과 우주적 상징주의” 지리학, 32 24-38.
- 형기주, 1985b, “都城計劃 綜考, 지리학논총, 12, 41-78.
- 황희연, 1985, “도시 형태에 대한 문화경관적 해석,” 도시계획, 20(1), 74-86.
- Giddens, Anthony,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최병두역, 1991,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 Mumford, Lewis, 1980, The History of the City, MIT Press(김영기역, 1990, 역사속의 도시, 명보)

資料

- 「慶尙南道東萊郡洞別家戶案」(1904), 「東萊府誌」(1740), 「海東地圖」(18세기 중엽), 「東萊府殉節圖」(1709), 「東萊府築城瞻錄」(1731), 「東萊府使接倭使圖」(18세기), 「東萊府 郡縣地方地圖」(1872), 「地籍原圖」(1915), 「地籍圖」(1930), 「東萊와 海雲臺誌」(1980), 「東萊區誌」(1995) 「사진으로 본 東萊百年」(1995).

원 고 접 수 일 2002. 10. 31
최종원고접수일 2002. 12. 9